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4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9월 4일 (음력 7월 12일) 월요일

활로 못찾는 기업도시 【1】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말로는 '지원' 실제론 '규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등 전남의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개발사업들이 미처 시작도 하기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정작 필요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또 부진한 투자유치 실적과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등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낭떠러지에 선 전남지역 기업도시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부지 확보·사업 내용 정부가 막아
개발성공 관건 투자유치 '나몰라라'

"기업도시 특별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업도시 개발의 핵심인 기업유치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간섭과 규제만 일삼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남도 기업도시 관계자들은 요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다.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투자자들의 외면과 풀리지 않는 각종 규제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기업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영암·해남과 무안을 각각 기업도시로 지정,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 불평의 요지다.

지난 2004년 7월 29일 지역발전혁신토론회 참석차 목포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천혜의 관광, 레저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정부로서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며 J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사업진척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내국인카지노 개설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남도는 영암·해남기업도시의 부지로 예정된 간척지 2천300만 평을 소유자인 농림부로부터 올해 안에 양도·양수받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전남도는 정부가 영암·해남기업도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농림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 전남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영암·해남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최근 J프로젝트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 결과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전체 예상 관광수익 1조565억원 가운데 카지노 수익이 전체의 85%인 8천9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내·외국인 카지노를 개설해야 전체 투자 수익률이 27%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운영시 수익률 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당초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에 내국인 카지노 개설조항을 포함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해 J프로젝트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른 카지노 사업은 난망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도는 기업도시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 정부는 뒷짐만 지고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중국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2천940억 원을 출자해야 하는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한국 정부의 입김이 별로 '먹히지' 않는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유치를 유도해야 하는데도 실제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털어내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며 "특히 개발 성공의 관건이 되는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보망과 네트워크를 가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슈카르트 그룹의 보리스 말베노비치(Boris Malbenovic·오른쪽)씨가 지난 2일 광주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대성여고 학생들과 함께 '빛고을 슈카르트 합창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르비아 그룹 슈카르트의 '빛고을 합창단'

'슈카르트'(Skart)는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 가운데 주민참여 퍼포먼스를 펼치는 대표적인 세르비아 출신 그룹이다.

작품 '빛고을 슈카르트 합창단'은 광주 정서를 토대로 노래를 작사·작곡, 합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슈카르트는 광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성여고 학생들과 함께 '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나는 소풍' 등 3곡을 합창, 영상에 담았다. 퍼포먼스의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돼 8일 개막하는 비엔날레 전시관에 전시된다. 슈카르트는 드라간 프로티위(Dragon Protic), 죠르주 발마조비치(Djordje Balmazovic), 보리스 말베노비치(Boris Malbenovic)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 음악, 건축 등을 결합하는 퍼포먼스 작업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中, 김정일 위원장 공식 초청

소식통 "中대사 통해 전달…6자회담 압박"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흔들리고 있는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북측의 '추가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중국은 이번 주초 평양에 부임하는 류샤오밍(劉曉明) 신임 북한 대사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공식 초청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과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자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찬성 등으로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기자 지난달 말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북중간 관계복원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대면회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김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장성택 북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이나 박재경 인민군 대장의 방중문제도 북중 수뇌부의 최근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있으며 방중 성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후 주석의 초청마저 거절할 경우 북중관계가 복원이 힘들 만큼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그의 중국행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명품 신도시' 수완이 뜨겁다 ▶11면

盧대통령 유럽·미국 순방 출국

14일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국빈방문 및 제6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실무방문을 위해 3일 오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운·조선 및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루마니아(5~7일)와 핀란드(7~9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한 뒤 10~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ASEM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 14일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sc.ac.kr
창간 36년 정보의 메카나름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